

다시 시작하는 봄

작열하는 햇살에 온몸이 타고

그을린 몸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을 동원하고

다음을 향한 겨울잠속에 껴안고 있는
쉽의 시간은 여상히 고즈넉이다.

표로스한 겨울잠을 지나며
비쳐오는 햇살은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이다.

새봄을 사용코자하는 만상은
절호의 시간이다.

시간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흔들리는 바람이 시샘을 해도

절대로 굳센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막 피는 채송화도
있도 나기 전에 피는 목련도

바로 그 다시 시작이라는 시도 속에
올해의 봄도 소릿 소릿
시작되고 있다.

열매를 향한 시도는
언제라도 설레입니다.

어린 아기가 탄생하는것과 같이
이 세상 모두가 다시 해보자는 시도 속에

역사는 언제나
봄의 그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시작됩니다.
우리마음에도 새봄이 시작되어
좌절했던 모든 마음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새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新たに始める春

灼熱する日ざしに全身が焼けて

日焼けさした身で実を結ぶため
時間を動員して

次に向けた冬眠の中に抱えこんでいる
憩いの時間は変わらぬ安らぎだ。

甘い冬眠を経って
光って来る日ざしは

春を待つときめくことだ。

新春を使おうとする万象は
絶好の時だ。

時間が時には私たちに騙して
揺れる風が嫉妬をしても

絶対に屈しない一つがある。
それはいつでも「また始まる」できるということ

もうちょうど咲くマツバボタンも
葉が出る前に咲く木蓮も

まさにその再び始まるということの中に
今年の春も **ソルッソルッ**
始まっている。

実に向けた試みは
いつでもときめきだ。

幼い赤ん坊が誕生するのと一緒に
この世の中の皆がまたやって見ようという試み中に

歴史はいつも
春のその現場が始まります。
今年も間違いなく春が始まります。
私たち心にも新春が始まって
挫折したすべての心たちが

背伸びをして起きる
新春を迎えられるように・・・